



“장애인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 하나하나”

불통 행정에 “.....” 말 못할 고통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상수화통역시스템’이 장애인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장애인들이 대상으로 하면서도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데다, 실효성도 미미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설치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부경청은 최근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성·가정폭력 상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7곳에 ‘화상수화통역시스템’을 추진, 운영 중이다.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거쳐 장애로 인한 상담·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온라인 상에서 수화 통역을 통해 성·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담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설치 장소 및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3월 이후 시스템을 이용한 실적은 3건이 전부다.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 언어장애인(105명)·청각장애인(176명) 등 예상 이용자가 1872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서구청·서부경찰 등 27곳에 시스템 설치·운영 홍보 안 돼 이용자 없어

숨기고 싶은 성·가정 폭력 공개된 장소서 피해 상담? 제도 자체 부정적 시각도

▶ 화상수화통역서비스란?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각·언어장애인과 수화 상담사는 화상채널로 대화하고, 공무원이 헤드셋을 통해 이 내용을 전달받아 3차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미미한 현황이다.

경찰서 지구대 뿐 아니다. 서구청 민원실 등 9개소와 관할 18개 주민자치센터에도 500여만원을 들여 화상수화통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지만 정작 안내 문구와 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직

원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가 적지 않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치평동 주민센터 측은 “평소엔 사무실 장식장에 장비를 넣어 놓고 있다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 개인 컴퓨터에 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 이용하게 한다”고 밝혔다.

성·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공개된 장소에서 거론하기 힘든 민감한 내용임에도, 개방된 장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은 벌이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조차 시스템 운영 여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서구 수화통역센터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 서비스가 설치돼 있었는지는 모르는 장애인이 많고 심지어 나도 몰랐다”며 “직접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적어 홍보할 뉘족한 방법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수화통역센터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 서비스가 설치돼 있었는지는 모르는 장애인이 많고 심지어 나도 몰랐다”며 “직접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적어 홍보할 뉘족한 방법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47시간 前... 범망 빠져나간 성폭행범

광주 좌봉산서 성범죄 50대 친고죄 폐지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내용 <2013.6.19 시행>

| | |
|----------------------|---|
| 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강간죄(유사성행위) 신설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여자)’에서 ‘사람(남자포함)’으로 확대 친고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간음) 및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 일반인 강간살인 공소시효 적용 배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침입죄 신설 |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 구체화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에 경비업체(경비원) 추가 |

50대 성폭행범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개정 법률 시행 직전 범행한 탓에 처벌을 간신히 면했다.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개정 형법 시행일(19일)을 47시간 앞두고 이뤄지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 기소 등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다.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에 광주 서구 좌봉동 좌봉산 산책로에서 B(여·47)씨를 유괴해 만났다.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B씨를 “산책이나 하자”며 으스스한 곳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이날 오전 A씨를 서부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이 A씨는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17일 오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철회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폐지로 고소 없이도, 합의해도 처벌하는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48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친고죄 조항은 지난 19일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폐지됐다.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

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그 동안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에 속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처벌도 피하게 됐다. 경찰은 애초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이 사건에도 관련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다 범행(행위) 시점이 47시간 전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니원침 (8847) 김중두



박형선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산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형선(61)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축은행 2대 주주인 박 회장은 경기 시흥 영락사 남광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수감됐다.

주머니 볼록해 잡힌 저금률 절도범

○경찰의 검문 검색 과정에서 주머니에 가득한 동전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뜬 30대 남성이 절정형.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0)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다세대 주택에 환풍기를 뜯고 침입, 전모(40)씨 안방에서 50만원의 현금과 금품을 훔치는 등 4곳에서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이씨는 경찰의 검문 검색 때 공인연락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상의 주머니에 가득 들어있는 동전을 수습하 여진 경찰에게 절도 혐의까지 추가로 들쭉.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학교폭력 왜 근절 안되나 했더니...

광주 학교들 예방교육 시간 대거 부풀렸다 감사 적발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부풀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사실 그대로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 관내 2개 자치구의 75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36개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실적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중학교의 경우 인터넷에 공시한 평균 예방교육시간은 675분

이지만 실제로 확인된 예방교육시간은 160분에 불과해 무려 515분이나 차이가 났다. 또 B중학교도 공시된 평균 예방교육시간은 790분이었으나 확인된 예방교육시간은 365분으로 425분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표본조사에서 예방교육시간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9곳이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허위과장 공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폐업 음식점에 도박장

나주경찰, 35명 검거

나주경찰은 26일 폐업한 음식점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도박개장)로 이모(53)씨 등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나주시 이창동 폐업한 음식점에서 속칭 ‘도리짓고 팽’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다. 이들은 건물 입구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문방’을 비롯해 ‘자급조탁책’, ‘모집책’, ‘수송 담당’ 등 역할을 정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 40여명을 동원, 현장을 급습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눈물도 햇살 만나면 꽃이돼요” 유엔이 정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인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트리우마센터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치유 작품’ 전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전시된 원예작품을 보고 있다. 트리우마센터는 이날 ‘눈물도 햇살을 만나면 꽃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5·18 피해자 21명이 치유 프로그램 과정에서 만든 미술과 원예작품 50점을 전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보건대 교수들 관선이사 파견 요청

대학정상화 나서

교비 횡령으로 구속된 이홍하씨가 설립한 전남 광양보건대학의 교수들이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대학 정상화에 나섰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 교수회는 26일 “최근 이홍하 설립자에 대한 사

대학정상화 나서

법적 단죄를 계기로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최근 교수회를 결성하고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임시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탄원서에서 “광양보건대는 지난 20여년간 설립자 이씨의 전횡으로 인해 교수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동안 목인과 동조로 보낸 시간을 스스로 고해하는 심정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이어 이씨의 부인인 서복영 한려대 총장 주도로 추진중인 두 대학의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현 이사진 8명의 승인 취소와 임시 관선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했다.

/광양=박정렬기자 pyj4079@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료원비)

| 구분 | 영업시간 | 상업지역(100석) | 비주말(90석) | 미주말(68석) |
|---------|-------------|------------|----------|----------|
| 평일 | 11:30~22:00 | 25,000원 | 12,000원 | 8,000원 |
| 토·일·공휴일 | 11:30~22:00 | 29,000원 | 16,000원 | 12,000원 |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볼골레
Vongole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3. 6. 24(월) - 6. 28(금)
 - 전형일 : 2013. 7. 4(목) 오전 10:00
 - 합격자발표 : 2013. 7. 8(월) 오전 10:00
 - 등록기간 : 2013. 7. 8(월) - 10(수)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 대학원 | 과정 | 학 과 | 모집정원 | 전 공 |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3 | - |
| | 석사 | 신 학 과(Th.M.) | 12 | 구약 신학,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
| | 석사 | 신학연구과(M.A.T.) | 2 |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 학 과(M.Div.) | 15 | - |
| 교육대학원 | 석사 | 교육학과(M.Ed.) | 12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